

2002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선정작품

유진 이오네스코의

오왕은 죽어 가다

작 / 유진 이오네스코

재구성·연출 / 이 성 규

(부제 : 죽음! 연습?)

공연을 준비하면서...

♠ “삶의 진정성 회복”

우리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며, 죽음은 삶과 동전의 양면처럼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며, 남의 일로 치부해 평소 마음의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 그것은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 진지해진다는 것은 삶이 진지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동반자로, 자신을 속이는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기만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숙고하여 새로운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죽음연습은 죽음이 주제이며 죽음의 과정을 공동 체험하는 연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극을 통한 삶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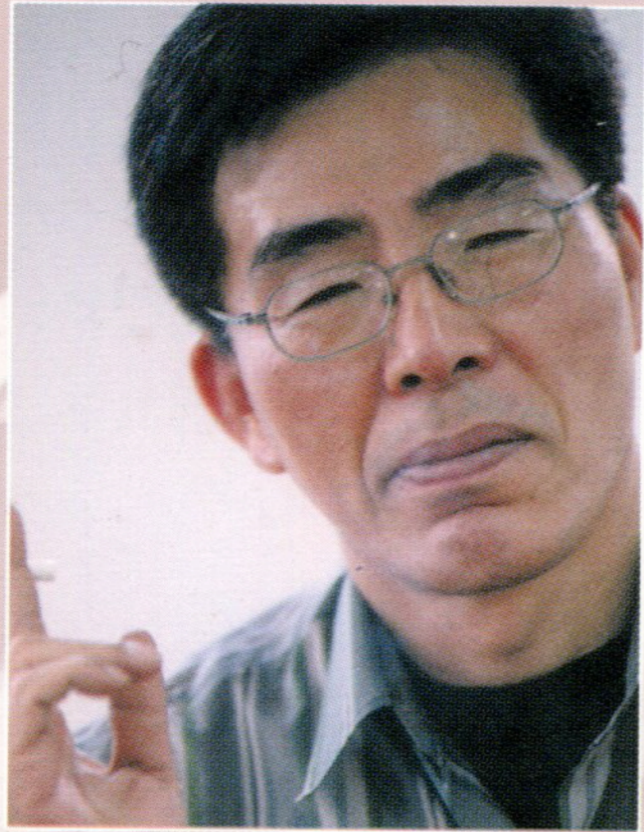
♠ 체험(연습)으로서의 죽음

죽음이 무대상에서 직접 표현대상이 된 연극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죽음은 흔히 무대 뒤에서 행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해 이야기되거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시체의 표현은 관객의 시야로부터 즉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즉 연극 속에서 이야기로서의 죽음은 있었으나 죽음 그 자체를 다루는 연극은 한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죽음! 연습?은 죽음이 주제이며 소재인 연극입니다. 또한 죽음을 볼거리로서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체험 또는 연습하는 연극입니다.

죽음! 연습?은 죽음에 맞닿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 고통을 다루는 연극입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관객의 무의식 속에 잠겨 있습니다. 죽음! 연습?은 그 무의식을 공간 속에 일깨워 같이 교류하고 느끼는 죽음의 사이코-드라마를 지향합니다. 무대는 죽음의 내부(즉 육체, 영혼)이며 배우들은 죽음의 과정에 나타나는 의식의 분신들입니다.

연출의 변



연출 / 이 성 규

“인간은 모두 죽게 마련이다”라는 부조리한 느낌은 이오네스코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늘 붙어 다니는 공포요, 허무였다. 나의 연극에는 은연중 죽음이 묻어 나온다.(다른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말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탐닉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연극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연극은 삶을 지향하지만 죽음도 추구한다. 막이 내리는 순간 나는 늘 삶의 허망한 종말을 보았으며 죽음을 체험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주제로 하고, 소재로 하는 연극을 하려니.... 그 동안의 감각이 오리무중이 되어버린다. 죽음과 맞닿기도... .가지고 놀기도... 애매하게 타락해버린 것일까? 죽음을 제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번 작품의 배우들이 공연 후에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연극은 또한 죽을 만큼 치열하고 진지한 일일 것이다. 죽음과 연극... 배우들이 가지고 갔으면 한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작품 줄거리

우주의 중심이며 이 세계의 권력자인 왕(관객을 포함한 보편적인 인간)이 죽어간다. 왕의 죽음의 징후는 천체운행의 이상, 자연환경의 급작스런 황폐화, 궁전내부의 이상기류로 감지된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애써 외면하려고만 한다. 죽음은 어김없이 진행된다. 시의(점성학자겸 의사)는 시시각각 죽음의 진행상태를 보고하고, 마그릿(첫째왕비)은 왕이 정직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의 무능과 무지를 나무라며 안전하게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한편, 왕의 애첩 마리(둘째왕비)는 삶에 집착하여 왕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발버둥치며 죽음의 진행을 방해한다. 근위병은 왕실의 대변인으로서 왕의 용태를 즉각 알리며 그를 애도하고 줄리엣(시녀)은 왕의 간호를 도우며 애처로워하나 죽음은 막을수 없다. 드디어, 왕은 죽고, 마그릿은 왕의 속세의 욕망과 환상을 끊어내고 왕을 명부로 안전하게 인도한다.

원작자 소개



작가 / 유진 이오네스코

유진-이오네스코-는 1912년에 태어나 몇 년 전에 죽은 프랑스의 극작가이며 마틴-에슬린에 의해 부조리극의 대표적 작가로 명명된바 있다. 부조리극이란,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현실의 참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극 양식이다. 현실의 참모습을 그리기 위해 사진처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자하는 사실주의와는 달리, 부조리극은 가시와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꿈과 상상과 무의식의 세계까지 현실을 확장시키며, 근본적으로 그 현실을 지배하는 것도 절대적이고 안정된 질서가 아니라 혼돈과 부조리 뿐 이라고 생각하고 현실, 즉 자신의 모습에 대해 착각의 환상에 빠져있는 관객들에게 정확한 현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부조리한 그대로, 부조리한 형식에 담아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이오네스코가 초기에 집착했던 문제는 주로 인간언어의 부조리함이었다. 즉 인간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극히 합리적이라 믿으며 문화의 축적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어서 인간의 언어생활은 원초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오해의 연속일 뿐이며, 거기서 비롯된 언어의 횡포가 인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머리 여가수」「수업」「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다.

이오네스코가 언어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부조리하다고 느낀 것은 죽음이다. 즉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조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노쇠나 질병 등 의학이나 과학으로 또는 원죄와 같이 종교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설령 그 설명을 인정한다 해도 원초적 의문은 남으며 과연 그런 죽음의 원인이 왜 생겨야 했는지, 또는 어째서 신은 인간에게 원죄의 가능성을 제공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거 없는 살인자」「코뿔소」「공중보행자」「왕은 죽어가다」등 이오네스코 후기의 작품들이 대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오네스코가 죽음의 강박관념이 심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왕은 죽어가다」는 이오네스코가 수년간 구상한 끝에 나온 역작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죽음에 대한 체험이 근간을 이룬다.(그는 큰 병에 걸려 한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다. 왕은 죽어가다는 이 병원에서 한달에 걸쳐 집필되었다)

이오네스코와 그의 부조리극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들어섰다.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했던 이오네스코는 포스터모더니즘의 시초를 연 작가로서 재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 「수업」은 50년이 넘게 프랑스의 한 극장에서 아직도 공연되고 있다.

CAST



왕 / 윤 석 이

〈대표 출연작〉
햄릿, 유랑극단
아름다운 거리
가족신화



마그릿(첫째왕비) / 김 미 현

〈대표 출연작〉
돼지와 오토바이
갈보집(발코니)
묘지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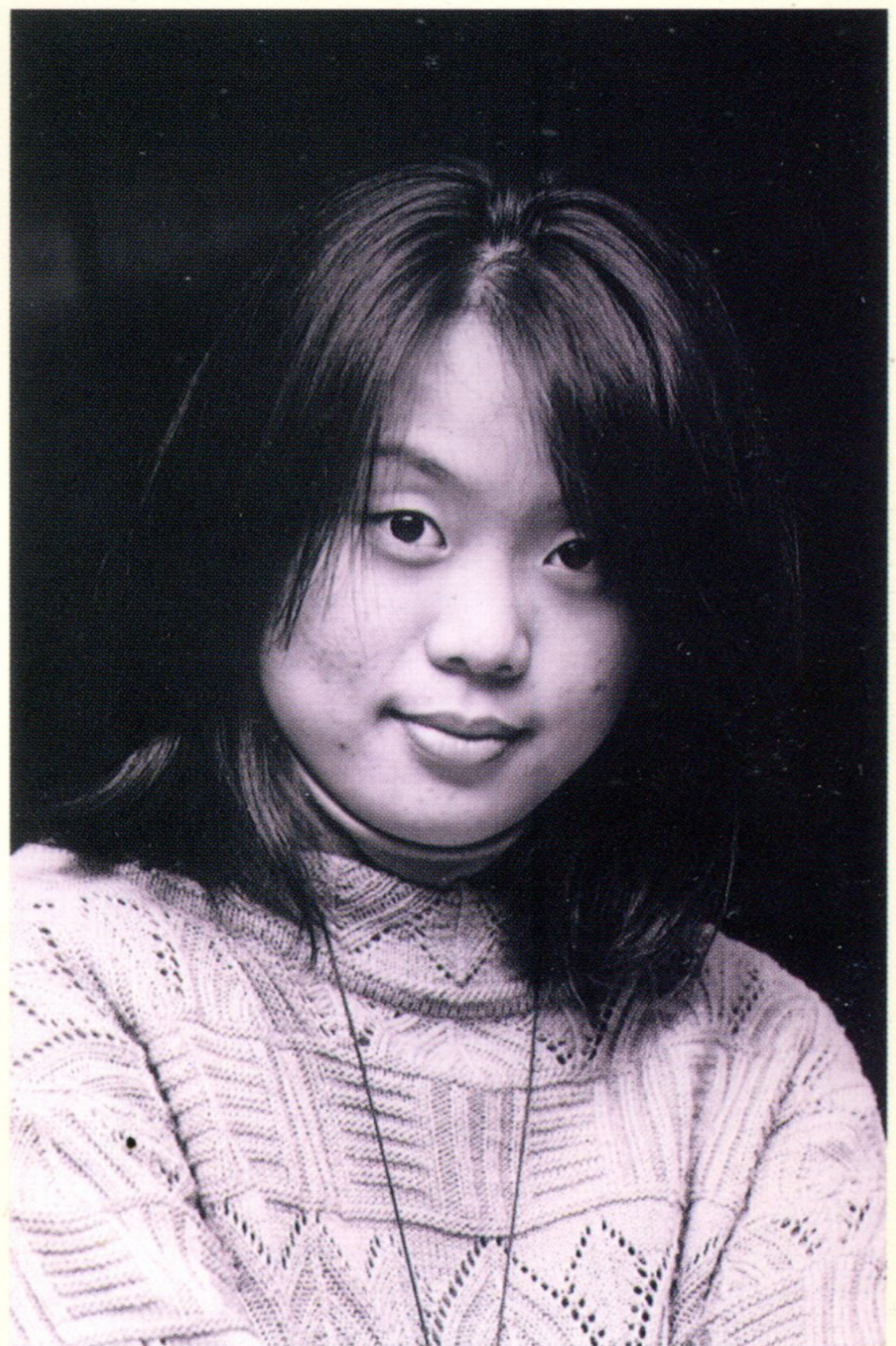
마리(둘째왕비) / 정 애 경

〈대표 출연작〉
마왕, 뮤지컬(자갈치)
가락국기



근위병 / 박 은 흥

<대표 출연작>
오구, 파우스트
햄릿, 시민K



줄리엣(시녀) / 양 효 윤

<대표 출연작>
메두사쿠스, 사랑 첫 이미지 꿈,
앵무가, 뮤지컬(자갈치)



시 의 / 박 호 천

<대표 출연작>
녹두꽃, 반신반수, 갯마을

STAFF

재구성·연출 / 이 성 규
기 획 / 공연문화기획 Mania
무대미술 / 백 철 호
조 명 / 이 찬 우

음 악 / 인 병 오
음 향 / 최 현 정
의 상 / 김 은 엽
분 장 / 이 지 원